JBLI 전북노동정책연구원
Jeonbuk Labor Policy Institute

노동이슈페이퍼
2021.4.19.
문의 강문식 연구위원

[131주년 세계노동절 교육지]

세계노동절의 유래와 의미[1)]

세계노동절의 유래

세계노동절의 유래는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씩 장시간 일해야 했고,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까지 강제로 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은 한 달 방세도 내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다수는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자본주의는 급격히 발전하면서 기업이 성장해갔고 갈수록 노동자들의 처지와 대비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866년에는 전 세계의 노동운동 단체가 모인 「인터네셔널」이 결성되었고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8시간 노동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됩니다. 1884년 10월에 열린 미국-캐나다 노동조합연맹(FOTLU) 회의에서는 1886년 5월 1일까지 8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이듬해에는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1886년 5월 1일 파업에는 노동조합연맹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자협회(IWPA), 중앙노동조합(CLU), 노동기사단(KOL)과 같은 여러 노동단체 회원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파업의 횟수와 참여한 노동자 수는 1884년~1886년 기간 동안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1) 본 이슈페이퍼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세계노동절의 유래에 대해 정리된 자료들에서 다소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원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재정리한 작업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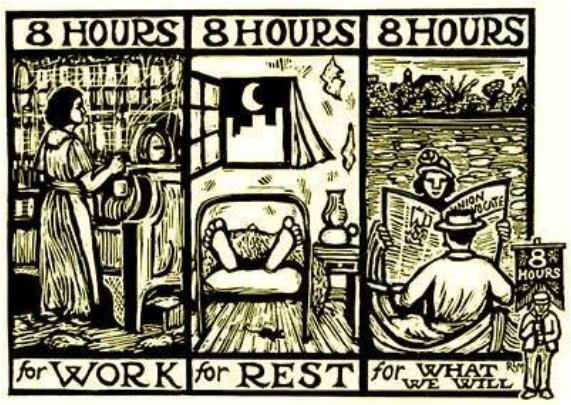


그림 1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여가'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였다

햇볕을 느끼고 싶고,
꽃내음을 맡고 싶어
우리는 그것이 신의 뜻임을 확신하지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할거야
조선소, 상점, 공장에서 우리의
군대를 소환할거야
여덟 시간 일하고, 여덟 시간 쉬고,
여덟 시간은 우리 하고픈 대로.

-당시 노동자들이 불렀던 노래[2]

1886년이 되었지만 8시간 노동제는 요원했고 결국 5월 1일에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뉴욕 4만 5천명, 신시내티 3만 2천 명, 밀워키 2만 명, 보스턴,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세인트루인스, 워싱턴 등 미국 전역에서 40만 명이 넘게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파업에는 숙련여부, 인종, 소속 조직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자 공장 굴뚝의 연기가 멈추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쉬었습니다. 메이데이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노동자이고,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것을 보여준 날입니다.

1886년 메이데이의 가장 큰 사건은 본래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시카고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카고에서는 3~4만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8만 명이 거리에 모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지금도 그렇듯 언제나 기업들의 편이었습니다. 5월

---

2) [원문] We want to feel the sunshine;
we want to smell the flowers;
We're sure that God has willed it.
And we mean to have eight hours.
We're summoning our forces from
shipyard, shop and mill;
Eight hours for work, eight hours
for rest, eight hours for what we will.
(Foner·Roediger, 2016)

3일, 경찰은 시카고 「맥코믹 리퍼」 공장 근처에서 집회 중인 노동자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맥코믹社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파업파괴자[3]를 고용해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1886년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깨고 조합원들에게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5월 3일에도 공장 인근에서 집회가 개최되었고, 노동자들이 파업파괴자들에게 돌을 던지며 야유하자 경찰이 비무장 노동자들을 향해 발포하여 6명이 살해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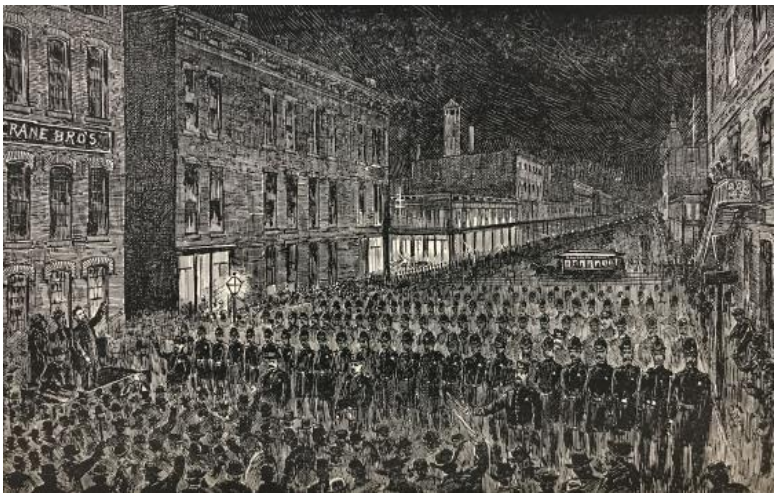


그림 3 헤이마켓 사건을 묘사한 경찰의 그림. 연단에서 연설을 하며 평화집회 중인 시위대 앞으로 무장 경찰이 도열해있다.(마이클 J. 샥, 1889)

5월 4일 오후 7시 30분,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는 전날의 총격에 항의하기 위해 약 3,000 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평화집회를 열었습니다. 카터 해리슨 시카고 시장은 집회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평화적인 행사였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사람들이 하나 둘 흩어지고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 경찰들이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이 때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졌고 경찰들은 흥분하여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11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당한 이날의 사건을 '헤이마켓 사건'이라고 부릅니다.(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여전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3) 정확하게는 맥코믹사는 '핑커톤 사무소'를 고용해 파업 파괴행위를 했습니다. 핑커톤은 지금의 용역깡패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립탐정사무소였습니다.

사건 이후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8명의 노동자가 '폭동교사' 및 살인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사는 "먼저 체포하고, 그 후에 법을 찾으라"는 기조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체포된 8명 중 6명은 당일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들이 폭탄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면서 총파업도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1886년 8월 20일 법원은 8명 중 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 중 4명이 1887년 11월 11일에 처형당했습니다. 아우구스트 스피-스[4]는 처형 직전 "우리의 죽음에 깃든 침묵은 언젠가 당신들이 잠재우려는 것보다 더 큰 울림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교수형에 처함으로써
나날이 확산되어 가는 이 사상을 깨부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목을 내놓겠다!
소크라테스, 그리스도, 조르다노 브루노, 후스[5], 갈릴레이는
죽었지만
그들의 진리는 영원히 살아 있다.
그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앞서 걸어갔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아우구스트 스피-스의 법정에서의 연설 중(1886년 10월 7일)[6]〉

---

4) August Spies(1855~1887)는 시카고 일대에서 활동하던 독일계 이민자였다. 스피-스를 비롯한 노동운동가들의 처형은 당시 미국사회의 빨갱이-이민자 혐오가 중첩된 결과이다.

5) 브루노, 후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형 당했습니다.

6) If you think you can crush them out by sending us to the gallows; [...] then I will proudly and defiantly pay the costly price! [...] Truth crucified in Socrates, in Christ, in Giordano Bruno, in Huss, in Galileo, still lives—they and others whose number is legion have preceded us on this path. We are ready to follow!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한 뒤 3년 뒤, 1889년에는 세계 20여개의 나라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제2 인터내셔널」을 결성하였습니다. 그 창립대회에서 “모든 나라, 모든 도시의 노동자가 동시에,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국제 시위를 개최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 1890년 5월 1일, 미국 전역을 비롯해 헝가리, 폴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세계 곳곳의 도시에서 수십 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집회가 열립니다. 첫 번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전 세계 노동자들은 매년 5월 1일을 세계노동절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2 인터내셔널」은 세계노동절에서 8시간 노동제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 전쟁 반대와 같은 보다 폭넓은 요구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노동절은 그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노동자 공통의 요구로 삼아 전세계에서 함께 행동하는 날입니다.

그림 4 1890년 5월 1일, 시카고 노동자들의 첫 세계노동절 행진(Trachtenberg, 1932).

세계노동절(메이데이)과 노동절

미국을 비롯해 영미권 나라 중에는 5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을 노동절(labor day)로 정해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라들에서 노동절은 전세계 노동자들이 같은 요구를 외치며 행동에 나서는 날로서 기념하는 세계노동절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했으니 그 포상으로 갖는 휴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절은 우리 정부가 근로자의 날을 정한 취지와도 비슷합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 1일을 단순히 '휴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나섰던 선배노동자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오늘날 전세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의 공식 명칭은 노동절이나 근로자의 날이 아닌 '세계노동절' 혹은 '메이데이'입니다.

한국에서의 세계노동절

조선에서의 최초의 세계노동절 행사는 1923년 조선노동연맹회 주관 하에 이루어집니다. 노동연맹회는 서울지역 노동자들이 휴업하고 장충단에서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5월 1일 서울에서 양화직공, 양복직공, 인쇄직공, 고무직공 등이 파업을 했고 그날 밤 종로에는 2,000여 명이 참석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탄압 아래에서도 노동자들은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당시 노동운동은 점점 일제의 지배에 맞서는 정치적 성격을 띄어갔고 일제의 탄압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1931년부터 1935년에는 노동운동 활동가 1,759명이 검거될 정도였지만 매년 세계노동절에는 전국 각 곳에서 '일제 타도'를 외치며 노동자와 민중들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警戒嚴重한 勞働日

시내 격경찰서가 련락하야

職工多數休業

대부분이 휴업하고 기념해

그림 5 조선 최초의 세계노동절을 보도한 기사(동아일보 1923년 5월 2일자)

1945년 해방 이후 첫 세계노동절 행사인 46년 5월 1일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주도로 서울운동장에 20만 명이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은 대한노총 등 우익 반공 단체를 동원하여 백색 테러 활동을 벌였고, 결국 1948년에는 전평을 불법화시켰습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지원 하에 대한노총이 개최한 노동절은 정권을 지지하는 행사로 전락하였습니다. 심지어 1958년에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노동절의 날짜를 대한노총 결성일인 3월 10일로 옮겨버립니다.

그림 6 1959년 3월 10일, 대한노총이 개최한 '제1회' 노동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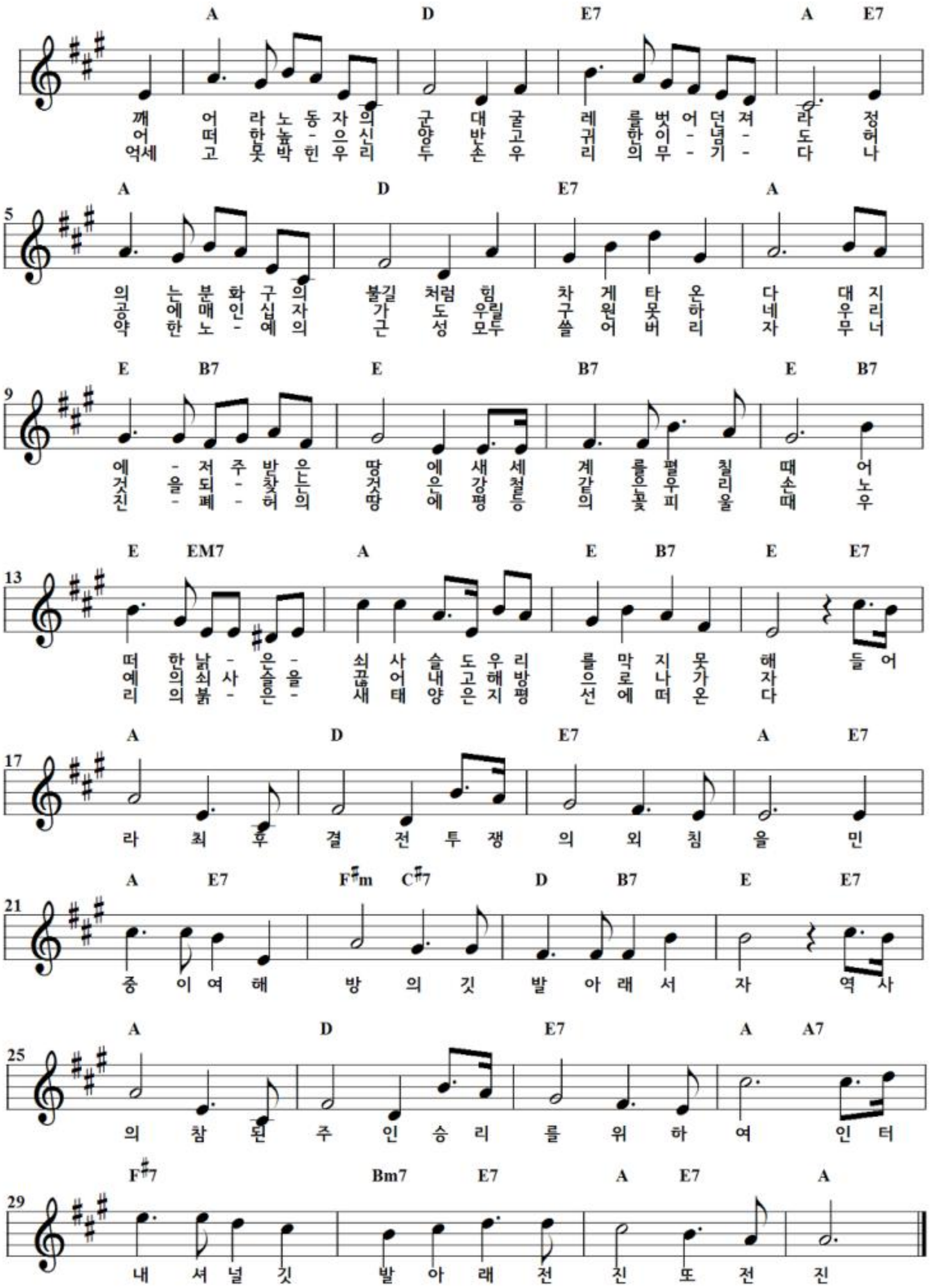
박정희 정권은 이에 더해 노동절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꿔버립니다.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불의에 저항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순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근로자'란 말은 일제의 잔재 중 하나입니다.

세계노동절의 날짜를 다시 찾은 것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과 같이 노동운동과 민주주의가 발전한 결과였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단체가 모인 '노동법 개정 투쟁본부'는 1989년 제100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정부와 어용노조가 정해놓은 3월 10일이 아닌 5.1절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매년 5월 1일을 세계노동절로 기념하며 그 해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발언하는 자리로 삼아왔습니다.

그림 7 2015년 세계노동절 대회

결국 1994년에 이르러 정부도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노동절은 여전히 제 이름을 찾지 못한 채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습니다. 5월 1일은 세계노동절입니다. 옆에 달력이 있다면 달력에 표시된 '근로자의 날'을 지우고 '세계노동절'로 바꿔주세요.

인터내셔널


A D E7 A E7
깨 어 라 노 동 자 의 군 대 굴 레 를 벗 어 던 져 라 정
어 떠 한 높 - 은 신 양 반 고 귀 한 이 - 념 - 도 허
억세 고 못 박 힌 우 리 두 손 우 리 의 무 - 기 - 다 나
5 A D E7 A
의 는 분 화 구 의 불길 처럼 힘 차 게 타 온 다 대 지
공 에 매 인 십 자 가 도 우릴 구 원 못 하 네 우 리
약 한 노 - 예 의 근 성 모두 쓸 어 버 리 자 무 너
9 E B7 E B7 E B7
에 - 저 주 받 은 땅 에 새 세 계 를 펼 칠 때 어
것 을 되 - 찾 는 것 은 강 철 같 은 우 리 손 노
진 - 폐 - 허 의 땅 에 평 등 의 꽃 피 울 때 우
13 E EM7 A E B7 E E7
떠 한 낡 - 은 - 쇠 사 슬 도 우 리 를 막 지 못 해 들 어
예 의 쇠 사 슬 을 끊 어 내 고 해 방 으 로 나 가 자
리 의 붉 - 은 - 새 태 양 은 지 평 선 에 떠 온 다
17 A D E7 A E7
라 최 후 결 전 투 쟁 의 외 침 을 민
21 A E7 F♯m C♯7 D B7 E E7
중 이 여 해 방 의 깃 발 아 래 서 자 역 사
25 A D E7 A A7
의 참 된 주 인 승 리 를 위 하 여 인 터
29 F♯7 Bm7 E7 A E7 A
내 셔 널 깃 발 아 래 전 진 또 전 진

[참고문헌]

· Alexander Trachtenberg, 「The History of May Day」, 『International Pamphlets』, 1932

· August Spies, 「Address of August Spies」, 『HISTORY IS A WEAPON』

· Christopher Thale, 「Haymarket and May Day」, 『The Electronic Encyclopedia of Chicago』.

· David Roediger·Philip S. Foner, 「Haymarket and Its Context」, 2016.

· Lily Rothman, 「The Bloody Story of How May Day Became a Holiday for Workers」, 『TIME』, 2015.

· Rosa Luxemburg, 「What Are the Origins of May Day?」

· Sidney Fine, 「Is May Day American in Origin?」, 『The Historian』 16(2), 1954.

· 「"PREPARE FOR THE STORMY TIMES BEFORE US": CHICAGO'S HAYMARKET AFFAIR」, 『Illinois History&Linclon Collections』.

· 「Haymarket affair」, 『WIKIPEDIA』

[노동절 교육 지원]

□ 전북노동정책연구원

❍ 문의 : 063-256-5003